

## ‘토닥 토닥’ 가슴으로 이야기 하는 평화

권운덕 작가의 그림책 ‘나무도장’(평화를 품은 책 간)은 제주 4·3 항쟁을 다루고 있다. 책은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열세 살 소녀 시리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하게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

그림책과 음악, 몸짓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남북교류협의회와 (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 양림역사문화작은 도서관 등이 함께 기획한 ‘2016 광주평화콘서트-토닥 토닥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다.

평화콘서트는 매달 한권의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가 4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행사에서 출발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사주는 어른들이 그림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북콘서트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남북교류협의회와 결합하면서 12회 연속 행사를 열 계획이다.

첫 콘서트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선정

**2016 광주평화콘서트**  
11일 남구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그림책 ‘나무도장’ 읽고  
음악·미술·무용 어우러진 무대



한 책은 ‘나무도장’이다. 구경화씨의 살풀이 춤으로 문을 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권운덕 작가가 직접 ‘나무 도장’을 낭독하는 순서가 이어진다.

서울 출신인 권작가는 자신이 ‘나무도장’을 그리게 된 이야기와 위안부 할머니, 베트남 문제, 광주항쟁 등 평화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게 된 사연 등을 들려준다.

또 신광중 3학년인 이민준·김정훈군이 기타 연주로 ‘나무도장’ 주인공 ‘시리’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연주한다. 두 사람은 시리에게 희망적이고 밝은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 ‘올리브와 찐콩’이 그림책을 소재로 한 연극 ‘나무도장’을 공연한다.

8월에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그린

‘꽃할머니’(사계절)를 통해 평화를 이야기한다. 역시 권운덕 작가의 작품으로 음악과 1인 연극, 춤이 어우러진다.

10월엔 피폭 피해자와 남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정승각 작가의 ‘춘희는 아기란다’(사계절)를 함께 읽고, 노래 ‘고향의 봄’ 노래를 테마 삼아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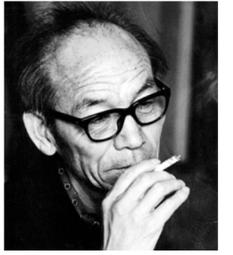
11월에는 ‘색으로 만나는 평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화가 한 명을 초청, 캔버스에 무대에 펼쳐놓고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색 하나 하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우리 하나 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미숙 도서관장은 “평화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는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림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앞으로 생명콘서트, 자유 콘서트 등도 진행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참가하기 전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671-7216. /김미은기자 mekim@

### 송정동 일대 ‘배동신 거리’ 만든다

고 배동신 화백 유족  
광산문화원과 협약  
배동신 미술제 개최도



故 배동신 화백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일대에 배동신 거리가 추진된다.

최근 고(故) 배동신 화백 유족(아들 배한성)과 광산문화원(원장 이현선)은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배 화백 출생지인 송정동 생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거리조성, 배동신미술제 개최 등이 다.

광산문화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배동신미술제 개최하고 배동신거리를 조성해 청년예술가 등 인재를 육성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동신 거리가 국제적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광산구를 예인(藝人)

고장으로서 브랜드화 하는데 아들 배한성(주)예술통신 회장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故) 배동신(1920~2008) 화백은 유화 밑그림 정도로만 인식되던 수채화를 회화 한 장르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했다. 한국 근현대 수채화 1인자로 평가받았으며 한국수채화협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SR 재즈밴드 Jazz Concert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2016년 북요상설무대 여섯번째 무대 ‘SR 재즈밴드의 Jazz Concert’를 연다.

레퍼토리는 스티브 바라캣 ‘DAY BY DAY’, 영화 가시리 OST ‘귀향’ 재즈 편곡, 진도 아리랑과 아리랑의 재즈 편곡 해금 연주, 마커스 밀러 ‘Run For Cover’ 등 재즈와 여러 장르의 콜라보레이션한 작품들이다.

‘SR 재즈밴드’는 ‘사람은 소리를 사랑한다’의 사람, 소리, 사랑의 이니셜. 색소폰(최의목), 기타(이인), 베이스(전병민), 드럼(이승현), 피아노(김은옥), 보컬(전우정)이 기본 구성으로 이루어진 전문연주팀이다. 국악기, 보컬, 클래식, 성악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0년 3인조로 창단됐다. 선착순 100명 무료공연.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보이는 라디오 인문학콘서트- 라디오가 있는 음악살롱

소춘아트팩토리 ... 8일 신형철 교수 ‘시 읽는 즐거움’

7월 13일엔 이윤선 교수가 ‘한국 신화와 전설’ 강연

광주시 광산구 소춘아트팩토리는 지난 5월부터 ‘보이는 라디오 인문학콘서트- 라디오가 있는 음악살롱’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최유준 전남대학교 교수의 ‘무지카 시네마’ 강연에 이어 오는 8일 오후 7

시30분 문학 평론가 신형철(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초청, ‘시 읽는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한다.

신 교수는 이날 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좋은 문장에 대한 생각을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와 함께

재즈그룹 ‘집시베일리’가 라이브 공연을 펼쳐 자유로운 집시재즈의 진수를 선보인 다.

7월 13일에는 이윤선 목포대 초빙 교수가 ‘한국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강연한다. 바리데기 신화부터 영웅 신화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다.

한편 이번 강연은 청춘문화기업 스토리박스(대표 강수훈)가 팟캐스트로 제작해



신형철 교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올릴 계획이다. 참가비 무료이며 예약제다. 문의 062-960-36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故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공개 팬 즉각 법적 조치’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 공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공개 시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현대미술관이 ‘미인도’의 일반 공개를 결정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인도’ 위작에는 천 화백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현대미술관이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천 화백 이름이 그림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개 시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